

## ■ 정책동향

### 중소고도화 10조원 투입

정부는 최근 ‘98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해 내년부터 2002년까지 제2차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을 전개, 총 10조원의 재원을 투입해 2만5천개 업체를 지원키로 했다.

또 2천년대 산업여건에 적합하도록 내년 상반기 중 중소기업 범위에 대한 전면개편을 추진하며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 및 업종·부문별 구조개선 추진 방안이 포함된 ‘중소기업구조개선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규모를 올해 3천억원에서 내년에는 3,500억원으로 늘리며 지역신용보증조합도 6개에서 10개로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도 올해 6천억원에서 7천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산업기능요원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을 올해 4만5,650명에서 내년에는 5만명으로 확대하고 병역특례 전문연구 요원의 배정비율도 올해 28%에서 2천년에는 50% 수준으로 올려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병역특례 지정업체가 벤처기업을 창업할 경우 소속 전문요원의 전직·파견을 허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를 개선, 연수생이 일정기간 연수후 평가절차를 거쳐 취업자격을 부여하는 연수취업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재경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력정책심의회를 설치해 외국인력관련 중요정책사항을 결정해 나가기로 했다.

### 벤처기업 육성 특별조치법 시행

통상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등의 협의를 거쳐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통산부는 이번 시행령에서 벤처기업의 정의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회사가 해당 기업 자본금의 10% 이상을 투자한 기업, 최근 3년간 계속하여 매출액중 R & D 비중이 3% 이상

인 기업, 또는 공업발전법의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우수신기술 이용사업, 기술개발촉진법의 신기술 이용사업, 영상진흥기본법의 영상물 창작 신기술이용사업 중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 등으로 구체화했다.

특히 벤처기업에 투자시 개인 또는 세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창업 3년 이내의 벤처기업 또

는 벤처기업으로 전환된지 3년 이내의 기업에 5년이상 투자한 경우로 하되 개인당 투자한도는 3억원 이하로 제한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계획

수립 대상기관으로 정부부처의 경우 국방부·정통부·과기처 등 10개부서, 정부투자기관은 한국전력공사·한국전기통신공사 등 8개기관으로 지정했다.

## 이노넷 시스템 機能 확대

통상산업부가 기업의 정보제공 및 애로타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운영중인 종합기업서비스센터 및 이노넷(Inno-Net)시스템에 물류·에너지 분야를 추가하기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현재 기업의 물류비 부담이 GDP 대비 15.7%에 이르고 에너지의 수급동향 등에 대한 정보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현재 이노넷 시스템 등을 통해 지원되고 있는 창업·자금·기술·입지·인력·판로·무역 및 투자·기초공업·

생활공업 등 9개의 지원분야 외에 물류와 에너지 분야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류분야는 대한상의가, 에너지분야는 에너지관리공단·한전·가스안전공사·유개공 등이 종합기업서비스센터의 총괄기관과 관계기관으로 연계되어 기업의 물류 및 에너지관련 애로사항의 지원과 인터넷을 통한 각종 정보의 제공에 주력하게 된다.

## 1종 전기용품 수입신고 폐지

통산부는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구조 또는 사용방법상 위험 및 장애 발생 우려가 적은 배선기구류·소형교류전동기 등 1종 전기용품 66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개시 30일 이내에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신고토록 하던 종전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전파법 관련고시 제·개정으로 전자파 적합등록이 필요한 물품의 대상을 넓혔으며 일정수량 범위내의 퍼스널컴퓨터·모니터 등을 자가사용, 전사용 또는 제품성능 평가를 위해 반입하거나 외국기술자가 일정기간후 재반출하기 위해 반입하는 경우 등은 신고만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물류공동화 사업 적극 지원

통상산업부는 기업들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유

통업자·제조업자 등이 수송·배송·보관·하역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물류공동화 사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물류공동화는 동종 또는 이종의 기업들이 공동 수·배송을 통해 차량적재율 향상 및 집하·출하·보관 등의 물류활동을 효율화하는 것으로 국내 기업들의 경우 공동 수·배송을 시행하는 업체가 9.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통산부는 도매배송업체를 물류공동화를 선도하는 물류전문업체로 육성하는 한편 업종별·그룹사별 또는 단체나 협회를 중심으로 추진

하는 물류공동화사업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통산부는 올해부터 신규로 지원하고 있는 물류공동화사업 지원자금을 당초 100억원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물류공동화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는 화물운송사업에 대한 진입제한, 화물자동차의 톤급별 도심통행제한 및 공동물류시설 건립상 제약요인 등 관련제도상의 규제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기술혁신 개발사업 경쟁체제 도입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에서 기술개발에 성공한 업체에는 차년도 사업에 우선권을 주고 실패한 업체에는 사업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주어진다.

중소기업청은 기술혁신 개발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기술개발 성공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기술혁신개발사업 발전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술혁신에 성공한 업체는 차년도 사업을 신청할 때 가점을 부여받거나 우선선정 등의 혜택을 얻게 되고 개발된 기술이 상품화될 수

있도록 자금·기술·인력·판로 등의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기술지원은 유망선진기술 기업에 우선 지정돼 3년간 종합지원 받는 것을 비롯, 기술지도 업체로 선정돼 각종 예로기술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받게 된다.

이밖에 시제품 제작에서도 비용 등을 지원받고 개발된 제품에 대해 정부 등에서 우선 구매토록 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반면 실패업체에는 출연금 회수, 차기 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中企 우수제품 마크 변경 및 支援 강화

중소기업 우수제품 마크가 돌고래 문양에서 태

극문양의 GQ마크로 바뀌고 이 마크획득 업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돌고래 문양에 '우수'라는 글자가 새겨진 기존의 중기 우수제품 마크를, 국제성과 고유성을 동시에 갖춘 태극상징 문양의 GQ마크로 바꾼다고 발표했다.

GQ는 Good Quality, Government Quality, Global Quality, Great Quality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중기청은 이번 마크변경을 계기로 이 마크획득 제품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인데 Q마크 획득 업체가 GQ마크를 신청할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공장심사 기준도 20개 항목에서 15개 항목으로 줄이기로 했다.

## '98 산업기반기금 지원 규모 확대

정부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유통·입지·환경 등 국내 산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내년도 산업기반기금으로 3,7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98년도 산업기반기금 운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통산부는 내년도 산업기반기금을 통한 용자지원액을 올해보다 15.2% 늘려 3,700억원으로 책정하고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유통합리화, 환경친화적 산업기반 조성, 산업단지 활성화, 제조업지원기반 구축 등 5개분야에 걸쳐 중점 지원키로 했다.

이중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 분야는 경쟁력 약화 산업의 노후시설 개체, 시설자동화 및 제품 개발, 신기술의 보급확대를 위해 총 1,230억원을 지원하고 유통합리화 분야는 유통정보화·표준화·공동화 등 유통인프라 구축에 8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환경친화적 산업기반조성 분야는 국내 기업의 청정생산설비, 환경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국내 환경설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530억원을 지원하며

산업단지활성화 분야의 경우 조건부·무등록공장 및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산업단지의 활성화 및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880억원을 지원한다.

제조업지원 기반구축 분야는 전자상거래(CALS) 체계 구축 및 엔지니어링·영상 등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총 21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통산부는 올해부터 시행된 기술담보사업의 확대를 위해 손실보전충당금으로 올해보다 53.9% 늘어난 40억원을 배정, 내년중 200억원 이상의 기술담보대출을 추진키로 했다.

또 국제규범에 적합한 기능별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종전에 생산성향상으로 지원하던 공장집화사업을 산업단지활성화사업으로 분리해 지원하며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연말까지 세부사업별 구체적 지원대상 및 기준을 확정, 내년 1월중 '산업기반기금 운용·관리요령'을 공고키로 했다.